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국일론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 충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권홍용 편집: 양재웅

만약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신년감사예배를 통해서 큰 도전이 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마 23~25 장; 살전 4:13~18). “만약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만약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요? 아니, 오늘 밤에 예수님의 오심이 예정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롬 3:23).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은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마 4:17), 자기 부인의 기회(마 16:24), 복음을 전파할 기회(막 16:15)가 바로 그것입니다. 2010년, 이 기회를 놓치는 미련한 자(마 25:3)가 되지 말고, 매 순간 깨어 그대를 준비하는 슬기 있는 자(마 25:10)가 되기 바랍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마 25:13).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회)
사망에서 자유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
(로마서 8:12~17)

들을 대항하고 배척해야 한다(요일 2:15~17). 더 이상 육신에 저서 육신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롬 8:12~13). 이제 우리는 새 삶을 살아야 한다.

육신과 성령을 따라 사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본질상 사는 것이 아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현재의 삶이 전부이다. 그러므로 무엇이 사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냐, 잘 사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결국 죽음에 이른다(롬 8:6~7). 반면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육신은 옛 세상에 속해 있기에 사방의 몸에서 구원받을 날을 소망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과 대항해 싸워야 한다(롬 7:23~25, 8:10~11; 갈 5:16). 그때 비로소 우리의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폭군 사방을 내어 쫓으시고 그 자리에 임하신다(롬 8:1~2).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시다.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생명에 이른다(요 6:63).

그리스도인은 무서운 세력을 가지고 육신을 통치하던 죽음(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직도 육신 안에 살고 있으므로 거기에 사망이 틈을 타고 들어가 그 안에서 다시 자리를 잡고 통치할 가능성이 있다(롬 7:5).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것

로마서 주제는 아주 명료하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는 살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믿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육의 세계, 옛 세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성령 안에 살며 성령 안에서 행동하며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 모든 것 안에 영원한 생명, 앞으로 완전하게 임할 생명의 약속이 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하신 말씀이 적용된다(요 3:5~6). 우리는 육을 따라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을 그의 자녀로 삼으셨다(요 1:12~14).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 두려움 없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롬 8:14~15). 이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롬 8:16).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다(롬 8:17).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현재와 미래로 설명한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실 모든 것은 이미 우리의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기다리고 있다(요일 3:2).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아직 남아 있다. 첫 열매 되신 예수께서 이미 받으셨고, 또 부활의 새 세계 안에 들어와 있다(롬 8:11).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정말로 진작이 것이 성취되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이다. 상속자가 된 현재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래는 그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미 약속되고 보증된 상속자의 삶이 있다(요 15:18~19).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계속되지만, 장래에 나타날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아멘.

A WOMAN, THIS WOMAN

⁶Now when Jesus was in Bethany, at the home of Simon the leper, ⁷a woman came to Him with an alabaster vial of very costly perfume, and she poured it on His head as He reclined at the table.

... ⁽¹²⁾¹⁴For when she poured this perfume on My body, she did it to prepare Me for burial.

⁽¹³⁾“Truly I say to you, wherever this gospel is preached in the whole world, what this woman has done will also be spoken of in memory of her.” (Matthew 26:6-13)

On His way to Jerusalem to take the cross, Jesus stopped by Bethany. Simon, the leper, invited Jesus with His disciples to his home (Mt. 26:6). It was just two days before the Passover and Jesus had told His disciples along the way, “You know that after two days the Passover is coming, and the Son of Man is to be handed over for crucifixion” (Mt. 26:2). The disciples were aware of Jesus’ perilous situation. They might not have fully understood the greater dynamics that awaited Jesus and themselves, but they certainly knew that Jesus was about to undergo some terrible pain and suffering. Their mind-set should have been focused on Jesus’ well-being, but as today’s Bible passage reveals their mind-set was on other things. Thankfully, there was a woman in Jesus’ presence whose heart and mind were devoted to Him. Let’s look at this very special woman to uncover her real beauty, so that you can see the things about her that God sees.

A woman came to Jesus Christ with an alabaster vial of very costly perfume, and she poured it on His head as He reclined at the table (Mt. 26:7). Besides His disciples, I’m sure Jesus was surrounded by a crowd of people in Simon’s home. Of all the people there, one woman grabbed the attention of all the others. In Jewish culture at that time, women had no power, but everyone’s eyes were fixed on this woman. She had the privilege, the great opportunity to express her love toward Jesus. She didn’t delay her actions, but rather stood up, walked across the room, and gave Jesus a very, very costly perfume. How do you treat Jesus Christ? This woman treated Him as her treasure, “But store up for yourselves treasures in heaven, where neither moth nor rust destroys, and where thieves do not break in or steal;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Mt. 6:20-21). This woman loved Jesus. She believed in Jesus Christ as Savior. Like Paul, she counted the costly perfume as nothing compared to her Lord, “More than that, I count all things to be loss in view of the surpassing value of knowing Christ Jesus my Lord, for whom I have suffered the loss of all things, and count them but rubbish so that I may gain Christ” (Phil. 3:8).

A woman committed to sacrifice for Jesus Christ. She gave Him everything she had. The Bible mentions that the perfume probably cost around 300 denarii (Mk. 14:5), which had the purchasing power equivalent to 300 days’ wages for a worker. Everyone around her thought she was stupid, “But the disciples were indignant when they saw this, and said, ‘Why this waste?’ For this perfume might have been sold for a high price and the money given to the poor” (Mt. 26:8-9). This woman poured out a year’s salary worth of perfume on Jesus’ head. Indeed, it could have been used to help many people. The disciples were visibly upset, and thought this silly woman just wasted a lot of money for nothing. Real love is a sacrifice of self. This woman delivered a very strong message, but it was not received well by the many. Matthew 7:3 says, “Why do you look at the speck that is in your brother’s eye, but do not notice the log that is in your own eye?”

I’ve had the opportunity to witness people give great sacrifices to this church, only to hear outsiders discourage them with words like, “Why do you want to do that when the church already has so much money?” 1 Corinthians 4:5 teaches us, “Therefore do not go on passing judgments before the time, but wait until the Lord comes who will both bring to light the things hidden in the darkness and disclose the motives of men’s hearts; and then each man’s praise will come to him from God.” Jesus knows your heart! This woman’s actions received blame from all the other Christians around her, but she had a strong message. Her gift was a sacrifice for Jesus. Her heart and mind were focused on Jesus Christ. She wasn’t worried about her environment, her conditions, or what other people thought. She cared about Jesus.

This woman was honored by Jesus. Jesus said, “Truly I say to you, wherever this gospel is preached in the whole world, what this woman has done will also be spoken of in memory of her” (Mt. 26:13). Wow! When we preach the gospel, we need to remember this woman. Jesus explained, “Why do you bother the woman? For she has done a good deed to Me. For you always have the poor with you; but you do not always have Me” (Mt. 26:10-11). A lot of believers judge the actions of others and complain about them, but this woman did a great job. Jesus further explained, “For when she poured this perfume on My body, she did it to prepare Me for burial” (Mt. 26:12). Her sacrifice was in preparation for Jesus’ death. Perhaps she didn’t even know the full ramifications of her actions, but Jesus did. Pouring the perfume on Jesus’ head was not her idea or plan. She didn’t make an appointment for this visit. She had an opportunity with Jesus, and she poured her life and heart for Him. She did not let the opportunity pass. She went with now, not later. Jesus knew that there would be other opportunities to do good to the poor, but not another opportunity to do what had just been done to Him. Jesus told the others in the room not to bother this woman, but rather to remember what she did for Him. Her ministry work paralleled the gospel! This woman praised Jesus Christ.

My dear friends, what a wonderful gift we receive from this woman today. Her actions go with the gospel forever. She is a permanent memory, “The memory of the righteous is blessed, But the name of the wicked will rot” (Prov. 10:7). Right now we have the opportunity to do the work of God, “We must work the works of Him who sent Me as long as it is day; night is coming when no one can work” (Jn. 9:4). I don’t want you to lose this opportunity, but rather I want you to seize it like this woman in today’s Bible passage, “making the most of your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Eph. 5:16). Don’t make the same mistake the disciples made with this woman, but “Conduct yourselves with wisdom toward outsiders, making the most of the opportunity. Let your speech always be with grace, as though seasoned with salt, so that you will know how you should respond to each person” (Col. 4:5-6). Amen. 

한 여자, 이 여자

“⁽⁶⁾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시실 때에 ⁽⁷⁾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 ⁽¹²⁾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¹³⁾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6~13)



김성관 목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 베다니에 들르셨습니다. 나병환자 시몬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 모셨 습니다(마 26:6). 그것은 유월절이 되기 이를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들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마 26:2). 제자들은 예수님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 면 그들은 예수님과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 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곧 끔찍한 고통과 아픔 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 의 안위를 염려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성경 본문은 제자들 의 마음이 딴 곳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 앞에는 마음과 정성을 쏟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여인을 살펴보면서 그녀 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여자가 예수께로 왔다

한 여인이 매우 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향유를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마 26:7). 시몬 의 집에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 외에도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었을 것 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여인에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 다.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여인들은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 여인에게 고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향 한 자신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 곧 특권을 가졌습니 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 방을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매우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보물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회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썩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20~21).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바울처럼 그녀는 값비싼 향유를 자신의 구주의 견줄 수 없는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헛로 여 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빌 3:8).

충성과 희생이 있다

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자 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 향유가 대략 300데나리온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마 14:5). 이것은 한 노동자의 300일 치 급여와 맞먹는 값 이었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모든 사람은 그녀를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 한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 하거늘”(마 26:8~9). 이 여 인은 1년 치 월급에 해당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사실 그 것은 많은 사람을 돕는 데 사용될 수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필적 뛰었습니다. 그들은 이 아름다운 여인이 많은 돈을 쓸데없이 낭비했다고 생각했습니 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이것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7:3은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저는 우리 회회를 위해 많은 일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

해 보았는데 그들이 듣는 소리라고는 낙심이 되는 방관자들의 말뿐이었습니다. “교회에 이미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 왜 당신은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4:5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 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그녀를 둘러싼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녀는 강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녀의 선물은 예수님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과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 신의 환경이나 조건, 혹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하 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

이 여인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마 26:13). 복음 을 전할 때 우리는 이 여인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셨 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 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 니하리라”(마 26:10~11). 많은 신자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하고 비판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러 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 여 함이니라”(마 26:12). 그녀의 희생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 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 완전히 알지 못했을지 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 은 그녀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집에 들르겠다는 약속 도 하지 않았습니 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기회를 갖게 되었고 자신의 삶과 정성을 주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그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는 다음에도 있지만, 자신에게 행해졌던 일은 두 번 다시 기회가 없 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인을 괴롭 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녀가 자신에게 행했던 일을 기억하라 고 하셨습니다. 그녀가 행한 일은 복음과 함께 전파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 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이 여자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인으로 부터 얼마나 놀라운 선물을 받 았는지 모릅니다. 그녀의 행동은 복음과 함께 영원히 전해질 것입니다. 그녀 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외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잠 10:7).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기회가 주 어졌습니다.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 하여야 하리 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요 9:4). 저는 여러분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이 여인과 같 이 그 기회를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렘 5:16). 제자들이 이 여인에게 한 것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외인에게 대해서는 자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 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골 4:5~6). 아멘. ■

메시아의 죽음 16

유대인들의 심문과 베드로의 부인

(요한복음과 마가복음3)

유대인들의 심문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 뜰 안으로 끌려 오셨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증거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다(막 14:55). 심지어 거짓증인들을 내세워 예수님이 이전에 했던 말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지만 거짓증인들의 증언도 일치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처벌할 수 없었다(막 14:58~59). 계속해서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잘못을 꼬집어내기 위한 질문을 던졌다. “네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막 14:61). 이에 예수님은 “내가 아니라 인자가 관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막 14:62)고 대답하셨다. 결국 예수님의 이 대답을 빌미로 하여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마가는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심문했음을 밝혔다. 이에 반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처벌하기 위해 훨씬 전부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였다고(요 11:47, 50).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힌 후에 대제사장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갔다고 기록하였다(요 18:12~14, 19). 또한 성전에 관한 예수님의 언급도 사역초반에 있었으며(요 2:19), 신성모독에 대한 것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있었음을 밝혔다(요 10:24, 36).

베드로의 부인

마가는 베드로가 연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기록하였다(막 14:66~71). 이에 반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종교지도자들에게 심문을 당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부인했음을 밝혔다(요 18:17).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현장에 베

드로 외에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요 18:15~16)과 겐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힐 때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말고의 친척이 베드로를 부인하게 만든 사람 중 한명이라는 사실도 기록하였다(요 18:26). 결국 마가는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이바의 집에서 예수님을 연속해서 부인했고, 요한은 베드로가 안나스와 가이바의 집에서 각각 부인했음을 밝혔다.

예전과는 달리 요즘에 많은 눈이 내리면 다들 걱정이 앞선다. 이것은 예전과는 다른 환경과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따라 금방 바뀐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진리가 있다. 그것은 성경이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다.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따라서 비록 한 사건을 두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서술이 약간 다를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주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한다. 세상 가치에 따라 메시아의 죽음을 무시하고 외면한다해도 메시아의 죽음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메시아의 죽음과 관계를 맺는 삶을 살자. 예수님이 해답이시다. 아멘.

*매주 월요일 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성경말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요1부예배 메시지(2010. 1. 6)

1.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요 6:35)
2009. 12. 27(주일/찬양)

2. 나는 세상의 빛이라(요 8:1~12)
2010. 1. 3(주일/찬양)

3. 나는 문이다

(요한복음 10:7-10)

자신들이 목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종교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양의 우리’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요 10:1~5).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요 10:6). 예수님은 무지하고 교만한 종교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목자라”(요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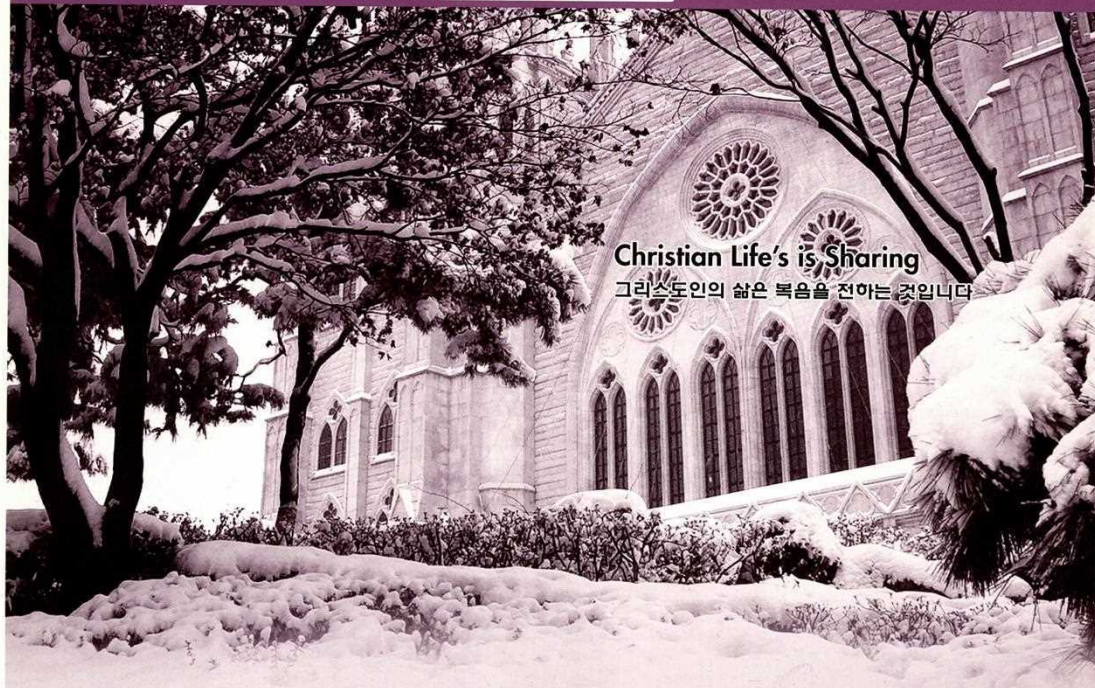
●그리스도는 문이다 예수님은 ‘문’이다. 더 정확히 말해서 ‘양의 문’이다. 양은 시력이 너무 좋지 않아 자신이 가는 길조차 모른다. 무지한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한 우리로 연결된 문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 문이 되신다. 이 문은 양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이 되어야 한다. 양은 고민하지 않는다.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기 때문이다. 우리가 양이 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렘 2:18).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곧 형벌의 십자가에서의 구원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 3:17). 양이 되어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면 모든 죄는 깨끗해진다(롬 5:1).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후 5:17).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 5:24). 그리스도는 문이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문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맏비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을 따라 섬겼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으며 종교인들은 타락하였다. 양들이 들어갈 문은 없었다(요 10:8).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였다. 이들은 교만하여 참 진리를 알지 못했으며 변론과 언쟁, 투기와 분쟁, 비방과 악한 생각 뿐이었다(딤후 6:3~4). 자신들의 방법으로 구원을 추구하였지만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은 자의적 숭배, 몸을 괴롭게 하고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일 뿐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골 2:20, 23).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행 4:12).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문이 없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문이다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열려 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요 10:9). 그리스도의 문은 교만과 자존심에 사로잡혀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기가 매우 좁고 힘든 문이다. 반면에 평생 강도짓을 하던 한 죄인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들어가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쉬운 문이기도 하다(요 3:16).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으시도다”(롬 10:12).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문이다. 이 문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문이다. 지금 이 영원한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다. 따라서 이 문을 찾는데 헛갈리거나 어렵지 않다. 우리 자신의 의로움, 교만, 자존심이 이 문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릴 뿐이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자. 오직 양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통과하여 예수님과 동행하자.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의 길 감사다.” 아멘.



Christian Life's is Sharing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들도 예수님을 믿고

저는 3대째 이어져 온 독실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승려 생활을 하셨고, 저 역시 원지도 모른 채 어려서부터 그 믿음과 풍습을 따라 생활해왔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밖으로 나가 봤더니 웬 할머니 두 분이 서 계셨고, 그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며 집요하게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그 당시 철 없던 저는 할머니가 가지지 않자, 짧은 열기에 그만 '예수쟁이들이 그만 떠돌고 꺼져!'라며 소리를 지르며 쫓았습니다. 저의 무례한 행동에도 두 분은 오히려 질 붙잡는다는 듯 한 표정으로 바라보시며, 뭐라 알아들을 수 없는 차분한 말로 열심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시며, 아쉽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뒤돌아가셨습니다. '제수 없는 예수쟁이들 때문에 오늘 하루를 망치겠구나.' 싶어 그 즉시 소금을 뿌렸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주님을 영접하여 은혜의 베풀고 주님께서 주신 열심을 따라가고 있는 제 자신을 느낍니다. 그럴 때면 지난 날에 저질렀던 막중한 그 죄악들에 소름이 끼치곤 합니다. 이런 죄인이 믿음으로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선교지는 아직도 국경 분쟁의 불씨가 남아있지만, 정신적으로나 생활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이었습니다. 사역 중에 어느 집을 방문하여 복음의 말씀을 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집 식구들이 느닷없이 큰소리로 나가라고 하며 저를 밀쳐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외딴 선교마을을 차분하게 부르짖은 후 옆으로 눈길을 뚫었는데, 불상을 놓고 향을 태우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속 큰소리로 '나가라!'고 저를 때리는 통에 문 밖으로 쫓겨났지만,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부디 저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간절한 기도뿐이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다음 사역을 하려던 중에 과거 어린 시절 우리 집을 찾아 오셨던 두 할머니를 예수쟁이라고 쫓아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쫓겨나면서도 그런 저를 위해 하였던 할머니들의 그 기도가 저를 이 지리에 서게 한 것 같습니다. 또한 그때 그 할머니들께서 기도하셨던 심정으로 저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성령의 깨우침과 깊은 가르침이 다시 한 번 크게 와 닿았습니다. "그대 내 자신도 어느 새 예수쟁이가 되었구나!" 주님의 역사가 광대하고도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구조 한 구절이 지금 머리속에 떠오릅니다. "고난을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자. 아멘!"

김형철(집사, 16교구)

'주님의 백성'은 주님이 지키신다

우리 팀은 사역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팀장과 팀원들의 간절한 기도가 요구되었다. 왜냐하면 우리 팀이 여성으로만 구성되었기 때문에 사역지가 두 번이나 변경되었고 마침내 맨 처음 결정했던 지역으로 최종 결정 되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은 주님이 지키신다, 주님은 남자백성, 여자백성을 구별하여 말씀하지 않으셨고, 우리는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교훈련에 임하였다. 참으로 은혜로운 3개월의 훈련기간이었다. 팀원들은 틈을 내어 기도원에 가서 합심기도하였고, 또 개별기도를 많이 많이 올렸다.

선교지에 도착한 이후의 사역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였다. 첫날보다 둘째 날, 둘째 날보다 셋째 날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날마다 기도의 강도가 세어져가게 되었다. 팀원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나가서 전도한 날에 더욱 더 많은 사람들과 더욱더 복음에 대한 열의가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고 간증하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노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정교에 의하여 굳어지고 비뚤어진 신앙을 바로 잡기 위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이들을 몸매한 가운데 두시기를 어느 때까지이냐' 간절히 부르짖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또 어린이들을 많이 만났다. 그들과 더불어 찬양하며 말씀도 전하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찬양하고 율동할 때 우리는 눈시울을 붉히며 그들을 열매안았다.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우리가 전하는 전도서를 받고 진지한 표정으로 읽으며 곁에가면 젊은이들을 마음속에 담았다.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렸다. 씨뿌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어찌 가능한 일이었는가! 이 선교지에 뿌려진 거룩한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커다란 결실을 맺게 될 것을 확신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곳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윤의(권사, 1교구)

사랑하는 (위임)목사님!

주 안에서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올해에는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시며 말씀 증거하셨기에
우리는 더욱 풍성한 말씀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목사님을 통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시선을 십자가에 두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결길로 가고 있을 때 돌이키라고 권면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목사님을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시듯 보호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연약해지시는 육신에 강건함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매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떠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까 기대하며
예배와 집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찬양 양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회개와 절름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죄인의 모습에서 십자가의 주님께 감사하는 눈물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말씀으로 오시기까지 사랑을 주시고
갈보리 산 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큰 사랑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하리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때로는 오소하시고 때로는 야단치시고 때로는 타르시는 성령님의
자비의 음성은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에 감사합니다.
웬 사랑입니까!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저의 주위에 있었던
천사가 누구였을까 헤아려 봅니다.
영안의 눈을 떠서 볼 수 있기를,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타성에 젖어 자기 만족의 실생활을 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는 듣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여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담이 되시며
진짜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새해에도 유일한 소망이 되신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주님의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09년 12월 22일 이선자 집사 올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자기 부인

저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입사 동기생의 권유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안수집사가 되고, 급기야는 장로로 헌신하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 한 구석에는 말씀의 갈급함과 허전함과 아쉬움이 늘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교역을 종언교회로 옮겼고, 위임목사의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복음의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성령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 상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내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과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보혈을 흘려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발버둥치며, 나의 죄는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의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갈 2:20)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마 16:24)는 주님의 말씀이 나의 믿음에 근거가 되었습니다. 지난 날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열심과 지혜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죄로 말미암아 매순간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나의 신앙 생활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은혜를 받고 보니 나의 노력으로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온전히 질 때만이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어 주시며, 내 뜻대로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 자신은 오직 무지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 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홍기(장로, 15교구)

재해수준의 눈이 내렸지만 우리는 더욱 하나가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롬 6:5)

지난 1월 4일 폭설로 뒤덮인 교회와 주변도로를 120여명의 청지기들(교회직원,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이 제설하였다.



청지기칼럼

그리스도의 향기

요즘 나의 삶은 감사하기보다는 작게, 혹은 크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채워진 날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그러한 상황들이 꼭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 같아 한편으로 하나님은 불공평하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 왔던 저로서 감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것들을 감사해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11월 한 달 동안 감사하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한 감사의 제목이 되지만 정작 나의 실생활에서의 감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삶이 계속되던 중 아버지가 갑작스런 수술을 하시기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좋지 않아 힘든 수술이 될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낙심하며 ‘왜 우리 가족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였습니다. 그러한 불평의 삶을 살고 있던 중 목사님께서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삶의 관점을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면 감사할 것이 많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지금의 나의 상황 가운데에도 감사할 제목이 많은 내의 잘 되어지지 않은 모습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우리 가족들과 나누며 함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이렇게 모여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 4:6). 우리 가족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관점을 바꾸면 우리의 삶 속에는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에 온전한 감사가 넘쳐 삶 가운데 참된 신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김현경(교사, 유치부)

십자가의 길

그랬으면 갈 수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마 11:28~29).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핵심을 대번 놓친다.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로 오라”(마 11:28),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마 11:29)이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쉼을 얻는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런데 그 쉼이 어떤 쉼인지는 모른다. 예수님께 나아가 얻는 쉼을 단순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는 세속적인 쉼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착각하지 말자.

예수님께로 나아가갈 때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쉼이 있다. 그런데 그 쉼은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일 때 완성된다.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끌어야 하는 팔레스틴의 농사에서 한 마리는 다른 한 마리가 이끄는 대로 가야 한다. 자기 힘을 빼야 한다. 그랬으면 하루의 일을 훨씬 쉽게 마칠 수 있다. 힘이 센 자 앞에서 버티면 결국 자기 손목이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무거운 짐을 맡기라는 것은 자신의 목에 매어진 멍에를 벗어 던지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온갖 지친 멍에를 벗는 대신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의미한다(마 16:24).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 졌다.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 아니, 그랬으면 갈 수 있다.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9	홍지연	18	대학부	김예실(18)
30	정성원	1	교역자	
31	김주영	1	사모	
32	정한나	1	초등1부	
33	정태준	1	초등1부	
34	김수환	14	청년1부	김수진(14)
35	정혜수	11	대학부	김사무엘(22)
36	강하라	16	청년1부	윤남준(16)
37	성기현	6	장년3부	최준호(20)
38	남궁경심	6	장년2부	최준호(20)
39	우연주	5	고등부	박지혜(2)
40	전민기	6	대학부	김은숙(7)
41	백종현	15	청년2부	
42	최미영	11	청년1부	조찬우(11)
43	정병학	8	장년3부	손선례(22)
44	정영근	19	장년2부	오명준(11)
45	박성재	19	장년4부	김재순(11)
46	이광근	18	청년2부	강인선(3)
47	박은경	18	청년2부	강인선(3)
48	문은실	17	청년1부	황윤희(22)
49	송하	18	청년1부	이승희(15)
50	정영일	11	청년1부	한금자(9)
51	이예은	13	초등1부	손도현(21)
52	윤이진	5	대학부	임지혜(21)

※ 중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청지기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 신년감사예배 중 당회원 및 교역자/시무예배 중 교회직원)

[illegible]